



### 사회복지모금회-광주사회서비스원 협약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3일 광주사회서비스원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 내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협력 ▲나눔문화 확산 ▲사회서비스 공공성 제고 관련 모금협력 ▲기관 상호 발전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교류 연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조호권 회장은 “사회서비스원이 추구하고자하는 가치는 유관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그 저변이 확대될 때 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나눔문화의 확산과 공공의 사회서비스를 연계해 더욱 다양한 부분에서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찬 기자



### 전남농기원 육성 양파 '세이프티' 통상계약

전남농업기술원은 23일 대농씨드와 전남도 육성 양파 신품종 '세이프티' 품종보호권 통상실시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에 따라 향후 3년간 50kg의 종자가 공급되면 최대 100ha까지 재배가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파는 국내에서 재배되는 규모의 80% (중만생종 기준)가 일본 품종으로 종자 수입 의존도가 가장 높은 품목 중 하나다. 특히 전남 양파 재배면적은 8,467ha (전국의 39%)로 수입 종자에 대한 로열티 부담액은 56억(전국 144억 원)으로 추정돼 품종 국산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양파 '세이프티'는 구가 단단해 저장 양파 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전남도 육성 극조생종 '파리' 품종과 함께 양파 종자 자급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홍재 전남농업기술원장은 “시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품종개발과 종자 자급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길용현 기자

### 민병대 도의원, 전국 친환경 '최우수의원'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민병대(여수3)의원이 23일 (사)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가 주최한 '2020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우수의원' 평가에서 최우수 의원상을 수상했다.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는 친환경의정활동을 전개한 지방의원에 대해 성실성, 심층도, 지속가능성, 실현성, 기여도 등 가치를 평가해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을 시상하고 있다. 민 의원은 전국 최초로 바다 미세플라스틱을 해양쓰레기에 포함해 이에 대한 관리와 규제를 명시한 '전라남도 바닷가환경 관리 및 보건 조례 전부개정조례'와 2019년 여수산단 환경오염물질 배출 조작 사건 이후 위해 화학물질 적정관리 및 초미세먼지 등

의 대기환경기준, 측정방법을 강화한 '전라남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또 온실가스 자발적 감축으로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8) 유치 전남도의회 특별위원회 활동 등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민 의원은 “앞으로도 도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 더 나은 내일을 향한 지역 환경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



## “실생활에 유용한 도자기 만들고 싶어요”

#### 전국기능대회 도자기부문 은메달 박효열씨

### 전국대회 14차례 도전 끝 수상 '영예' 후계자 양성 등 도자기 영역 확대 주력

“실생활에 유용한 도자기를 만들고, 후계자 양성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지난 9월 14일부터 21일까지 전북에서 8일간 열린 제55회 전국기능대회에서 14년간 도전했던 박효열씨(62)가 은메달을 수상했다. 그는 다년간 전국기능대회에 출전하며 본인만의 도자기를 만드는 방식과 대회 규정에 차이가 있어 고전했다. 박씨는 30년 넘게 도자기를 만들며 손의 느낌, 도자기를 두드렸을 때 나는 소리 등 몸의 감각을 이용해 도자기를 만들어왔다. 하지만 전국대회에서는 정확한 수치를 적용하지 않으면 탈락되기 일췌였다. 처음에는 본인만의 방식으로 전국대회

수상을 노렸던 박씨도 2018년부터 대회 규정대로 정확한 수치를 이용해 도자기를 만들어 올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그는 은메달을 수상하며 국내 도자기 부문에서 실력을 인정받았지만, 이전까지만 해도 생계를 제대로 꾸리지 못해 도자기를 그만둘까 고민도 많았다. 박씨가 도자기를 접한 것은 군대를 제대한 이후다. 당시 그는 마산에 있던 도자기 직업훈련원을 수료하고 경기도 이천에서 근무하며 도자기에 대한 애정을 쏟기 시작했다. 하지만 생계가 문제였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그에게 도자기를 배우려는 학생들은 소수에 불과하고, 외부 강의의



나갈 때도 학력이 걸림돌이었다. 오직 자기에 몰두했던 그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결국 비닐하우스를 전전하다 다육식물 농장을 하기로 결심, 화분 제작에 나섰다.

입소문에 다육식물과 도자기로 인한 수입이 쌓이자 그는 공부를 하기로 결심하고 늦은 나이 39살에 검정고시로 고등학교를 졸업, 이듬해에 전남도립대 도예과를 수료한 뒤 호남대 산업디자인과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또 전국기능대회에서 자신만의 기술과 대회 틀까지 섭렵한 그는 전국대회에 나설 후계자 양성을 위한 강의에도 나서고 있다. 그는 “도자기만으로는 살아남기가 힘든 시대에 현실과 타협하는 것이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힘겹게 전국대회에서 수상한 만큼 조만간 공방을 차려 후학들을 양성하고 싶다”고 바람을 전했다. 이어 “도자기 중 값비싼 것은 전사용으로, 산 것은 밥그릇 등으로부터 이용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며 “막사발이나 화병 등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중저가 도자기를 만들어 판매, 도자기의 영역을 확대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종찬 기자

### 동신대-삼일건설, 우수 인재 육성 산학협력

#### (재)삼일파라뷰문화장학재단, 발전기금 기부식도

동신대학교(총장 최일)는 23일 오전 대학 중앙도서관 2층 부속실 소회의실에서 삼일건설(주)(회장 최갑렬)과 현장실무능력을 갖춘 맞춤형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동신대 최일 총장, 송경용 대학원장, 삼일건설(주)최갑렬 회장 겸 (재)삼일파라뷰문화장학재단 이사장, 최인술 사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식 후에는 삼일건설(주)이 사회공헌 사업을 위해 설립한 (재)삼일파라뷰문화장학재단의 발전기금

(1,500만원) 기부식도 열렸다. 이날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동 연구, 기술 개발, 경영 자문, 정보 교류를 통한 산학협력을 활발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삼일건설(주)은 동신대 재학생들의 현장실무 능력을 높이기 위한 현장실습, 위탁 교육과 졸업생 취업 지원에 나서고, 동신대는 삼일건설(주) 임직원들의 교육 연수를 지원한다. 삼일건설은 지난 1995년 설립된 지역 중



견 건설사로, 대학과 지자체, 저소득층 가정에 발전기금과 장학금을 기탁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서 최갑렬 회장은 “동신대가 전남지역 명문 사학으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기에 오늘 같은 자리를 마련했다”며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역 사회에 보탬

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며 “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일 동신대 총장은 “소중한 뜻을 이어받아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대학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조기철 기자

### 광주도공, 품질·고객만족 경영 '최우수'

#### 품질 경쟁력 우수기관 2년 연속 선정 쾌거

광주도시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표준기술원에서 주관하는 제46회 국가품질대상에서 전국 도시공사 가운데 유일하게 '2020년 공공부문 품질경쟁력 우수기업'에 선정됐다. 평가는 한국표준협회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서류평가와 현장평가 등의 심사를 거쳐 진행됐다. 특히 올해 평가에서 도시공사는 지난해에 이어 광주·전남지역 공공기관 부문에서 유일하게 선정돼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심사에서 도시공사는 ▲열린경영 및 근로자 참여 ▲투명한 성과평가와 보상 체계 연동 ▲품질경영 혁신활동 체계적 구축·운영 통한 수준 높은 밀착형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같은 성과는 전사적 차원에서 품질경

영 혁신활동을 체계적으로 전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공사는 올해 중앙정부 평가에서 경영성과 등 다양한 분야를 인정받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최우수등급인 '가' 등급과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공기업혁신 '최우수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노경수 광주도시공사 사장(사진)은 23일 “지나해에 이어 올해도 품질 경쟁력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뤄 기쁘게 생각한다”며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스마트도시 광주건설, 공사 미션과 결맞는 최고의 품질경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성수 기자



###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우수상'

#### 행안부 전국 마을기업 지원기관 평가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가 2020년 행정안전부 전국 마을기업 지원기관 평가에서 2위에 선정돼 우수상을 수상했다. 행안부는 매년 전국 17개 시·도 마을기업 지원기관을 대상으로 1년간의 운영성과를 점검해 상위 5개 기관을 선정한다.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는 마을기업 의무교육과 자립지원을 위한 컨설팅, 전

국 최초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제도 운영을 통한 양적성장 등 정량적인 요소와 코로나 19 상황에 대응한 비대면 홍보 및 판로지원, 마을기업 브랜드·디자인 개발, 지역 대학 연계 사회적경제 교육과정 개설, 사회적경제 혁신성장사업 등 다양한 우수시책 추진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정근산 기자

### 전매게시판

우리 이웃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전자우편 : jndn@chol.com

**결론** ▲주상민·이정임씨 아들 성호군, 조백관영 이음형용, 두일중학건설 대표)·강영주씨 딸 안경양=28일(토) 낮 12시30분 서울 중구 인형동2가 PJ호텔 4층 헤스티아홀.

**모집** ▲찾아가는 평생교육배 달강좌 모집=모집기간 31일까지(선착순마감), 운영기간:20일~12월15일, 대상:10인 이상의 지역주민(교육소외계층은 5인 이상 구성도 허용 \*65세이상노인, 장애인, 결혼이민자, 새터민 등) 신청:방문제출, 문의·접수:광주 서구 평생학습관 062-350-4973.

**알림** ▲사이버게슬PC방 개업(대표 조건호)=24일(화) 오후 7시 광주시 광산구 월계로 50(월계동 781-1) 1층 062-971-1259. ▲광주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중

독 문제(알코올·니코틴·인터넷·약물·도박)로 고민하는 대상자와 가족 무료상담=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062-413-1195.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지부 미혼모 상담=미혼모 임신해 무료 산전 후 진료 및 분만 혜택과 상담(임양, 양옥) 서비스 제공, 24시간 상담가능 080-733-1313, 222-9349. ▲광주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마음건강주치의운영·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를 통한 중독·자살·우울 문제 등 매주 수·금요일 오후 2시, 5시 무료상담 654-3802.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법률상담=월·금 오전 10시~오후 5시, 국번없이 132. 무료 법률 상담·법률구조. 면접 상담은 광주지방 검찰청 민원실 2층, 광주 동구 준법로 3번지. ▲광주자살예방센터(24시간 365일 운영)=자살! 슬프지 마세요! 주위사람과 대화하세요! 정신건강 및 자살위기 상담 전화 1577-0199. ▲광주동구정신건강증진센터=주간지서서비스(주 5일 운영) 회원 정신건강 상담서비스 무료제공 및 맞춤형실질환자에 대한사례 관리(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233-0468. ▲광주지방보훈청 재대군인지원센터=중·장기 복무 재대군인 소송 분쟁 시 비용지원. 1577-8339, 국번없이 132.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지부정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부모 사망, 이혼, 가출, 학대 등으로 친부모와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일정 기간 위탁할 인원 상담 (062) 351-1206.

### “도정소식 전할 ‘SNS 서포터즈’ 참여하세요”

#### 전남도, 내달 9일까지 80명 선발

전남도가 12월 9일까지 도정 주요 소식을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로 홍보할 ‘SNS 서포터즈’를 모집한다. SNS 서포터즈는 전남도의 정책과 행사, 문화·관광, 생활 정보 등 다양한 도정 소식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평소 전남에 관심이 많고 SNS 활용이 가능한 만 19세 이상 내국인과 해외 SNS 계정을 운영 중인 국내 거주 외국인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총 8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할 경우 전남도 대표 누리집과 공식 블로그를 통해 내용을 확인 후 담당자 이메일(kha1005@

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 뉴미디어팀(061-286-2064)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남도는 SNS 매체별 회원수, 경력 및 활동실적 등을 평가해 오는 12월 24일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포터즈로 선발되면 내년 1월부터 1년간 활동하게 된다. 활동 실적에 따라 소정의 원고료가 지급되며, 역량 강화 교육 등 다양한 혜택도 주어진다. 이건설 전남도 대변인은 “1인 미디어, 모바일 지향 등 변화에 맞춘 도정 홍보를 위해 SNS 서포터즈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전남도정 홍보에 관심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